

“당신에게 매월 50만원이 조건 없이 생긴다면?”

# 전북에서 ‘기본소득 실험’ 실시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1200만원 재원 마련 8월 11일부터 2주 간격으로 지급대상자 4명 선정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당첨자 무작위 선발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같은 조건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 부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재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최고 수준에 있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제도를 알리기 위한 첫 실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오는 8월11일부터 2주 간격으로 4차례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4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무작위로 선발한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은 전북에서 최

초, 전국적으로는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불안정한 노동체제가 더 이상 ‘일자리=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이 처음 알려진 2000년대 초반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가적 제안 정도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원미련의 한계로 대상자와 기간은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전북지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재원조달에 기여한 종교단체의 개혁의지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있다.

부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중요 포인트”고 답했다. 해외 사례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는 기본소득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6개월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관찰해 온라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한국네트워크 전북지부 성격으로 인천, 대전, 부산과 함께 전국 4개 기본소득 관련 단체 중 하나다. /뉴스

## 전북대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심평원 평가서... 4년 연속

전북대학교병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전국 1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대병원은 수술부터 치료까지 진료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구조·과정지표 부문 17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종합점수 99.93점으로 삼급종합병원

전체평균(97.02점)을 크게 상회했다.

전북대병원은 유방암을 비롯한 유방질환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간 협업 시스템을 통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우리병원이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전 의료진이 노력한 결과”라며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57개 업체에 중기 육성자금 103억원 지원

전주시는 최근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업체 5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올해 총 57개 업체에서 신청한 경영자금에 대해 용자평가표에 따른 엄정한 심의를 거친 뒤 이들 업체에 총 103억9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용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

업과 벤처&비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지원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별로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7월 16일 이내에 용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83개 업체에 125억 33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 /김민근 기자

## 다중이용시설 테러방지 총력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규)가 U-20 대회를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 테러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대는 관내의 가장 큰 다중이용시설인 홈플러스 효자점을 찾아 2인 1조의 무장경찰관을 거점 배치해 거동수상자 및 수상한 물품소지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박현규 효자지구대장은 “개막일인 20일부터 종료일인 6월 8일까지 대테러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조개잡다 고립된 관광객들 구조

조개를 채취하던 관광객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부안 해경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됐다.

23일 오후 11시 12분 전북 부안군 하섬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관광객 이모씨 등 2명은 이날 119를 통해 하섬에서 고립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양경찰 구조대 및 변산해경센터 경찰관을 급파 모두 구조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전주에서도 개최

###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체험행사인 ‘201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체험전은 에너지 절약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된 체험 행사이다.

시는 에너지 안전(자립)도시 ‘에너지디자인 3040’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체험전을 유치했다.

올해 체험전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기초지식과 과거·현재·미래의 모습, 일상생활 속 에너지 소비 노하우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3D 에너지효율 절약워크·크레파스를 그린 에너지·에너지 교통안전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

이 운영된다.

또 한국가스공사 가스관과 한국지력연방공사의 지역남방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관 등 4개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 및 에너지원별 특징과 원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다양한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분야 정책을 함께 지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을 모집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 체험전에 참여할 초·중·고 학생들은 에너지체험전 사무국과 인터넷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초·중·고 학생들을 포함해 일반인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의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에너지 체험전에 직접 참여해서 보고 듣고 만지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에너지의 소중함, 에너지의 안전함,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 체험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업이 참여한다.

한편, 전주에서 31일 펼쳐지게 되는 ‘201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은 앞서, 24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 천현 어린이 축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완산경찰, 찾아가는 치안정책설명회 개최

### 전주시청 공무원 대상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24일 덕진예술회관을 찾아 치안정책설명회를 전주시 산하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치안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경찰서 기능별 소관업무를 간단히 설명한 이후 치안여건, CCTV

설치현황, 교통사고사망 발생 건수 등 완산의 치안현황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안전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주시청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치안 설명을 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완산치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경찰, 선박검사제도 활성화 간담회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3대반칙 근절(해양안전 비리) 특별단속활동으로 기획수사 분야 총 70명을 적발하는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후속대책으로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제도 활성화 등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전북 수협 공제보험지부 등 찾아가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불철 어업수수 기간 선박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전내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 역할도 담당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